

광주경총-나주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

목표 인원 78% 이상 참여...중도탈락자 한 명도 없어
하반기 단·중기 모집 ↑...공모전·자조모임 운영 강화

광주경영자총협회와 나주시가 구직단
념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추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참여자별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취업 지원을 제공한 결과, 올해 들어 현재
까지 목표 인원의 78% 이상이 사업에 참
여했으며 중도탈락자 없이 전원이 교육과
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했다.
양 기관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하
반기 단기·중기 과정의 참여자 모집을 확
대하고 우수사례 공모전과 자조모임 등 사
후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해 청년들의 취업
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나선다.
광주경총과 나주시는 고용노동부가 지
원하는 ‘2026년 나주시 청년도전지원사
업’의 올해 목표 인원 103명 가운데 78%
이상이 교육에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포기하기

나 장기간 취업을 준비하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자신감
을 회복하고 취업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참여 청년들은 진로 탐색과 취업역량 강
화, 심리 회복 등 개인별 상황과 필요를 반
영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구직 의욕을 높
이고 구체적인 취업·진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적
극적인 교육 참여 속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참여자 전원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면서 중도
탈락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경총과 나주시는 하반기 더 많은 지
역 청년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기 1개월 과정과 중기 3개월 과정의 참
여자 모집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 과정 참여자는 참여수당 150만원



광주경영자총협회와 나주시가 구직단념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추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목표 인원의 78% 이상이 사업에 참여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을 비롯해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활동에 따
른 수당 등 최대 2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 준비에 필요한 심화 교육과 개인별
맞춤형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이달 말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우수사례 공모전’도 개최한다. 참여자들의
교육 경험과 자신감 회복 사례 등을 발굴·
공유해 사업 성과를 지역사회로 확산하고

청년들의 참여 동기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 수료 이후에도 참여자 간 관계 형
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후
관리 프로그램인 ‘자조모임’을 새롭게 운

영한다.
자조모임은 참여자들이 공통 관심사와
취업 경험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운영하는 방식이다. 참여자 간 정보
공유와 소통, 네트워킹을 활성화해 수료
이후에도 취업 준비와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정책뿐만 아니
라 나주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청년정책과도 사업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구직을 잠시 중단했던 청년들의 사회활동
과 취업시장 복귀를 돕고 지역사회 참여와
정착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청년도전지원
사업은 단순히 교육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사회 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하반기 참여자 확대와 체
계적인 사후관리, 나주시 청년정책과의 연
계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
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생명 안전망 구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한국생명존
중희망재단과 협력해 정신건강 위기에 놓
인 소상공인의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
화 확산을 위한 전국적인 생명안전망 구
축 활동을 본격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경기침체와 매출 감
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
인의 심리·정서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50대 남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명존중과 정신건
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먼저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자살예방센
터 간 1:1 매칭을 기존 35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했다. 양 기관은 상호 긴밀히 협
력해 고위험군 발굴·개입·연계, 자살 예
방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 예방 교육, 맞춤
형 서비스 지원, 자살 위험 수단 차단 등
지역 밀착형 생명지킴이 활동을 추진한다.
또 공단 지역센터 우울증 선별검사 도
구인 ‘PHQ-9’을 비치해 소상공인이 자신
의 정신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전남광주도 ‘3G 서비스 시대’ 막 내리나

SKT 3G 신규가입 중단...고령층·IoT 설비 전환 등 변수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3G 서비스의
퇴출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전남광주지역 이용자와 관련 설비에도 적
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책 건의와 검토 수준에 머물렀던 국
내 3G 서비스 종료 논의가 SK텔레콤이
오는 9월부터 3G 신규 가입 중단을 추진
하면서 실제 가입자 전환을 위한 절차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SK텔레콤은 9
월부터 3G 신규 가입을 받지 않는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알리고 관련 절차
를 협의하고 있다.
신규 가입 중단은 통신망 종료에 앞서
기존 이용자를 상위 통신망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행 단계다.
현재 국내에서 3G망을 운영하는 이동
통신사는 SK텔레콤과 KT다.
LG유플러스는 2G에서 LTE로 전환하
면서 3G망을 운영하지 않았다.

3G 이용자 감소세는 가파른 상태다.
실제 지난 4월 기준 국내 3G 휴대전화
회선은 34만6011개로 전체 휴대전화 회
선의 0.6% 수준이다. 2023년 말 72만
9633개와 비교하면 약 2년4개월 만에
52.6% 감소했다.
가입자가 급감하면서 통신사 입장에서
는 이용자가 극소수인 3G망을 유지하는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반면 3G에 사용되는 주파수를 LTE와
5G 등에 활용할 경우 데이터 수용 능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알리고 관련 절차
를 협의하고 있다.
특히 전남광주지역에서도 3G 서비스
종료에 현실화할 경우 고령층 등 기존 이
용자들의 통신환경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
로 전망된다.
3G 이용자 가운데는 오래된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만큼
LTE·5G 전환 과정에서 단말기 교체 비
용과 통신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휴대전화뿐 아니라 3G 기반 사물인터
넷(IoT) 설비도 변수다.
승강기 비상통화와 차량 관계, 결제 단
말기 등 일부 설비가 3G망을 이용하고 있
어 서비스 종료에 앞서 장비 교체와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승강기 비상통화처럼 안전과 직결
되는 설비는 단순한 통신망 전환보다 세
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장비 소유자와 관리업체가 다른 경우가
많아 전국적인 일괄 교체에도 상당한 시
간이 소요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종료를 위해서는 기존 이용
자 보호 방안이 핵심이다.
통신비와 단말기 교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요금제와 단말 지원책은 몰
론, 승강기 등 3G 기반 IoT 설비의 안정적
인 전환 대책까지 마련돼야 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시민 아이디어, AI 서비스로 만든다

‘모두의 AI’ 경진대회...전라·제주권 예선 내달 6일

전남광주 지역 청년과 시민들이 인
공지능(AI)을 활용해 지역과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
는 기회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모두의
AI 실험실 AI 서비스 경진대회’를 개
최하고 오는 9월 6일까지 참가자를 모
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모두의 AI 실험실’ 온
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개인·지역·사
회 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AI 서비스 개발에 나서게 된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 참가자들은 전
국 5개 권역 가운데 전라·제주권 예선
에 참여하게 된다.
전라·제주권 예선은 9월 16일 오프
라인 거점인 ‘모두의 AI 라운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최대 4명으로 팀을

꾸려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
는 9월 6일까지다.
대회는 기획서 제출과 서면평가를
 시작으로 권역별 예선과 본선 진출팀
발대식, 전문가 코칭·멘토링, 최종 발
표 및 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서면평가를 통해 수도권·강원권·충
청권·경상권·전라·제주권 등 5개 권
역에서 각각 10개 팀씩 총 50개 팀을
예선 진출팀으로 선발한다.
각 권역 예선에서는 상위 2개팀씩
총 10개팀이 본선에 진출한다.
본선 진출팀에는 약 2개월간 국내
주요 AI·IT 기업 전문가들의 코칭과
멘토링이 제공된다.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공공·민간
데이터와 API, 바이브코딩 토큰, 클라
우드 자원, 개발지원도구 등도 지원된
다. 수상팀에는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제공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세척력이 우수하고,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비닐하우스·차광페인트 제거제



고객센터 062.654.7896
010.7564.4706

이 메 일 tank10323@naver.com
홈페이지 www.kcsoap.com

광주공장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37-1
담양공장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169

